

‘챔피언’ 광주FC “이젠 1부리그다”

선수단 2023시즌 위한 워밍업 시작...31일까지 국내 훈련...내달 3~31일 태국 전훈 등

‘챔피언’ 광주FC의 1부리그 도전이 시작된다. 1년 만에 1부리그로 복귀한 광주FC가 2023시즌을 위한 워밍업을 시작한다.

‘우승’으로 시즌을 마무리하고 휴식을 취했던 선수들이 19일 광주축구전용구장 내 클럽하우스에서 진행되는 선수단 미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동계 훈련에 돌입한다.

1차 동계훈련은 오는 31일까지 광주축구센터 등 일대 훈련장에서 진행된다.

월드컵으로 인해 일찍 리그가 마무리되면서 선수들은 두 달 가까이 휴식을 취했다. 휴식이 길었던 만큼 선수들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한 근력 강화와 함께 지구력, 기초 체력 향상을 위해 강도 높은 훈련 프로그램을 소화하게 된다.

훈련 기간 코칭스태프는 선수 개인 컨디션을 체크하고, 선수 보강 작업도 진행하게 된다.

이어 광주는 해외 전지훈련에 나서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나서게 된다. 코로나19 이후 첫 해외 전지훈련 장소는 태국이다.

태국 동계훈련은 내달 3일부터 31일까지 치앙마이에서 진행된다. 이어 제주도로 장소를 바꿔 2월 3일부터 18일까지 서귀포에서 훈련을 이어간다.

광주는 2·3차 전지훈련을 통해서 선수들의 손발을 맞추게 된다. 무엇보다 조직력 향상, 전술 훈련에 초점을 맞춰 실천 감각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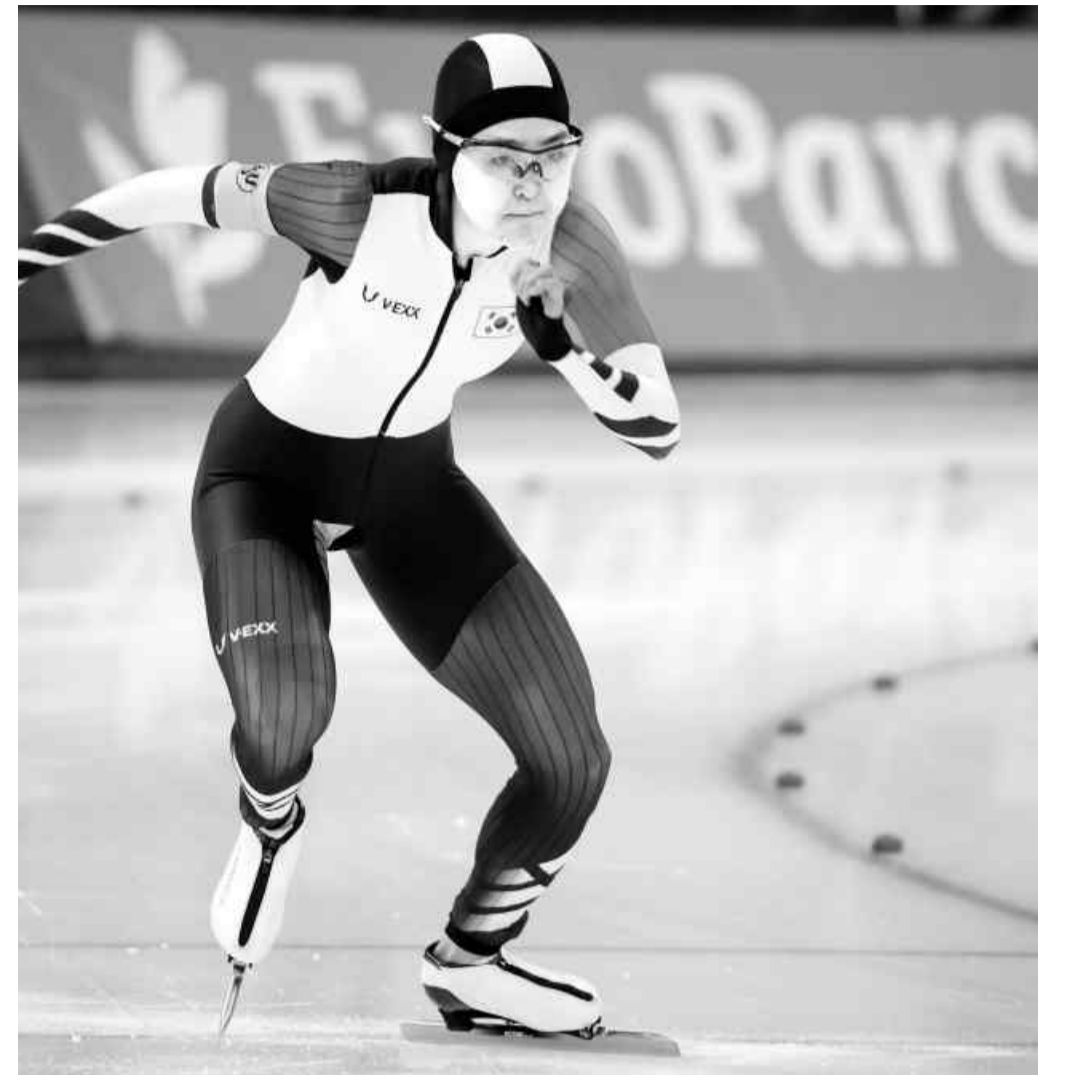


1년 만에 1부리그로 복귀하게 된 광주FC가 19일 2023시즌을 위한 훈련에 돌입한다. 사진은 K리그2 우승 시상식에서 단체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광주FC 제공>

1부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우승 감독’ 이정호 감독은 “한 시즌 고생한 선수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 더 큰 목표를 이루려면 선수단 모두 더 강한 정신력과 체력으로 시즌에 임해야 한다”며 “겨울 내 흘린 땀이 시즌 종료 후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만큼 선수들의 개인 기량 점검과 함께 더 다양한 전술과 탄탄한 스쿼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1년 만에 K리그1 무대로 복귀한 선수들도 남다른 의지로 새 시즌을 기다리고 있다.

K리그2 ‘MVP’에 빛나는 주장 안영규는 “선수단 모두 지난 시즌 일궈낸 우승과 승격이라는 기쁨은 있고, 더 높은 목표와 함께 그에 맞는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며 “추운 겨울을 뜨겁게 보내 최상의 경기력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



김민선이 17일(한국시간) 캐나다 캘거리 올림픽 오벌에서 열린 2022-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4차 대회 여자 500m 디비전A(1부리그)에서 스타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빙속 김민선 ‘월드클래스’

월드컵 500m 4연패... ISU 국제대회 5회 연속 우승

‘신(新) 빙속여제’ 김민선(23·의정부시청)이 또다시 개인 기록을 갈아치우며 월드컵 여자 500m 4회 연속 우승 행진을 이어갔다.

김민선은 17일(한국시간) 캐나다 캘거리 올림픽 오벌에서 열린 2022-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4차 대회 여자 500m 디비전A(1부리그)에서 36초96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지난 10일 같은 장소에서 거둔 개인 기록(36초97)을 뛰어넘으며 무서운 흐름을 이어갔다.

김민선은 올 시즌 출전하는 대회마다 금메달을 싹쓸이하고 있다. 이달 초에 열린 ISU 4대륙선수권대회까지 합하면 ISU 국제대회에서 5회 연속 우승했다.

이날 9초 인코스에서 스타트를 끊은 김민선은 첫 100m를 전체 4위 기록인 10초46에 통과했다.

이 구간을 가장 먼저 통과한 네덜란드 디오너 포스카프(10초31)보다 0.15초나 느린 기록이었다.

그러나 김민선은 무섭게 스피드를 끌어올리더니 안정적인 레이스로 2위 다카기 미호(37초26·

일본)를 크게 앞서며 우승했다.

김민선은 이날 경기에 출전한 20명의 선수 중 유일하게 36초대 기록을 끊었으며, 2위 다카기를 무려 0.30초 차이로 제쳤다.

1천분의 1초 차이로 순위가 갈리는 스피드스케이팅 단거리 종목에서 0.30초 차이는 어마어마한 격차다.

게다가 다카기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여자 500m 은메달리스트다. 김민선이 얼마나 무서운 레이스를 펼쳤는지 짐작할 수 있다.

베이징올림픽 여자 500m 금메달리스트인 미국의 에린 잭슨(37초35·3위)과 격차는 더 컸다. 김민선은 이상화(은퇴)가 2013년에 세운 세계 기록(36초36)에도 한 발자국 더 다가섰다.

세계 1위 자리도 굳건하게 지켰다. 월드컵 포인트 60점을 추가해 총점 240점을 마크한 김민선은 세계랭킹 2위 유타 레이르담(네덜란드·190점)과 격차를 50점 차로 벌렸다.

한국 선수 중 월드컵 최다 연속 우승 기록은 이상화의 10회다. 이상화는 2013년 3월 월드컵 파이널 2차 레이스부터 2014년 11월 월드컵 1차 대회 2차 레이스까지 월드컵 10차례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연합뉴스

‘무기력’ AI페퍼스 15연패 수렁 속으로

V리그 홈경기 현대건설에 0-3 패

광주 AI페퍼스가 무기력하게 15연패를 기록했다. 페퍼스는 18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드람 2022-2023 V리그 홈 경기 현대건설전에서 0-3(17-25, 26-28, 20-25)으로 무릎을 꿇었다.

페퍼스는 개막 이래 연패를 15로 늘렸고 현대건설은 연승 숫자를 14로 늘렸다.

페퍼스는 팀 장단 이래 한차례도 현대건설을 꺾고 못하고 8연패를 당했다.

1세트에서 현대건설이 7점을 뽑을 동안 한점도 뽑지 못한 페퍼스는 야스민의 오픈 공격을 최가은이 블로킹으로 막아내면서 득점의 물꼬를 텄다.

이후 6-8까지 따라붙었지만 현대건설 야스민의 속공으로 점수를 내준데 이어 박은서의 오픈공격이 막히면서 순식간에 6-10까지 벌어졌다. 막판에는 15-24로 무려 9점차까지 허용하는 등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1세트에서 페퍼스가 기록한 17점 가운데 공격으로 뽑은 점수는 12점에 그쳤다. 나머지 5점은 현대건설의 범실로 얻은 점수였다.

페퍼스는 2세트 20-17로 리드한 상황에서 내리 4점을 연속으로 내주며 위기관리의 한계를 드러냈다.



광주 AI페퍼스 니아 리드가 18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드람 2022-2023 V리그 홈 경기 현대건설전에서 스파이크 하고 있다. <KOVO 제공>

막판 박은서의 투혼이 그나마 위안이였다. 박은서는 21-24에서 현대건설 고예림의 오픈공격을 블로킹 득점으로 연결한 뒤 킥오픈 공격과 블로킹 득점을 보태 24-24, 동점을 만들었다. 하지만, 듀스 스코어로 접어들어 26-27에서 밀린 상황에서 현대

건설 고예림에게 서브 에이스를 허용, 세트틀 잡을 기회를 날렸다.

페퍼스는 3세트에서도 공격 득점 10, 공격성공률 25.71%, 리시브 효율 19.05%로 공수에서 무너졌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마민캄 베트남 첫 프로당구 PBA 투어 챔피언

한국 오태준 4-1 제압

마민캄(47·NH농협카드·사진)이 베트남 선수로는 최초로 프로당구 PBA 투어 챔피언에 올랐다.

마민캄은 지난 16일 밤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2022 하이원리조트 PBA-LPBA 챔피언십’ PBA 결승전에서 오태준을 세트 점수 4-1(7-15, 15-12, 15-10, 15-8, 15-10)로 제압했다.

정상을 정복한 마민캄은 우승 상금 1억원과 랭킹 포인트 10만 점을 추가해 남자부 랭킹을 31위에서

5위로 끌어 올렸다. 세트 점수 1-1로 맞선 3세트가 경기의 분수령이였다.

마민캄은 2-7로 끌려가다가 5이닝부터 7이닝까지 3연속 득점으로 성공해 동점을 맞췄고, 9이닝 2득점과 10이닝 하이런 7득점을 쏟아 담아 리드를 잡았다. 기세를 탄 마민캄은 4세트 2이닝에 하이런 8득점으로 8-4 역전에 성공한 뒤 4이닝부터 공타 없이 득점을 채워 15-8로 한 세트를 더 달아났고, 5세트에는 14이닝까지 가는 접전 끝에 15-10으로 경



기를 끝냈다. 베트남을 대표하는 PBA 선수인 마민캄은 2019-2020 시즌 마지막 정규투어인 웰컴 저축은행 웰빙챔피언십에와 일드카드로 데뷔한 뒤 이듬해 정식으로 1부 투어에 등록해 활약하기 시작했다.

특히 ‘당구 황제’ 프레데리코 쿠드롱(벨기에·웰컴저축은행)과 상대 전적에서 앞서 ‘쿠드롱 천적’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그리고 19번째 투어 출전인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송진호 도체육회장 당선인 공식행보 시작

김영록 지사 만나 의견 나눴

송진호(사진) 제38대 전남도체육회장 당선인이 16일 당선 첫 행보로 김영록 전남지사를 만나 체육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송 당선인은 이어 무안군 남악중앙공원에 있는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동상을 참배했다.

그는 방명록에 “아시아를 품고 세계를 향하여! 행복도 건강도 전남체육, 하나로 소통하는 전남체육, 미래의 새 역사를 전남체육인과 함께 써나갈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송 당선인은 금명간 도체육회장직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내년 전남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추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송 당선인의 임기는 2023년 2월 16일 정기대의원총회일부터 2027년 정기대의원총회전일까지 4년이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아바타: 물의 길,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2관	아바타: 물의 길, 압꾸정
3관	아바타: 물의 길
4관	아바타: 물의 길, 올빼미
5관	아바타: 물의 길, 프레이 포 더 데블
6관	아바타: 물의 길, 올빼미
9관	아바타: 물의 길, 극장판 보로로와 친구들: 바 이러스를 없애줘!
7관 씨네커를	신비아파트 극장판 차원도깨비와 7개의 세계,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8관 씨네커를	올빼미,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압꾸정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2022 광주국악상설공연(12월)

일시 : 2022-12-01(목) ~ 2022-12-22(목) 17:00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광주시립발레단 제133회 정기공연 호두까기 인형

일시 : 2022-12-21(수) ~ 2022-12-25(일)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

문의 : 062-522-8716